

#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진화<sup>1\*</sup>, 강은진<sup>2</sup>

<sup>1</sup>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sup>2</sup>숭의여자대학교 아동미술디자인전공

## Effects of infant children Mothers' humor and ego resilience on Maternal behavior

Jin-Wha Lee<sup>1\*</sup>, Eun-Jin Kang<sup>2</sup>

<sup>1</sup>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sup>2</sup>SoongEui Woman's College, Dept of art and Child care in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만2세반에 재원 자녀를 둔 어머니 18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형태의 설문조사를 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의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일반배경변인에 따른 유머감각,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은 각각의 하위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둘째, 어머니의 유머감각은 대처전략을 제외한 세 하위 영역이 양육행동의 세 하위 영역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어머니의 자아탄력성도 세 변인과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양육행동, 교수적 양육행동, 긍정관계설정 양육행동을 각 41, 39, 28% 정도 설명하였고, 정서적 표현성과 자아탄력성, 스트레스대처전략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머감과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mothers'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on the maternal behavior. 187 mothers of 24-36 month old children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To analyze the data,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ncerning the mothers' personal variables, the mean of the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and maternal behavior were relatively high. Second, the mothers' sense of humor and its sub-scales, except as a copying strategy, and ego-resilience had a positive co-relation with the maternal behavior and its sub-scales. Lastly, the mothers' sense of humor and its sub-scales, and ego-resilience were significant variables to influence the maternal behavior. As stated above, the ways were discussed to improve the mothers' sense of humor and ego-resilience.

**Key Words** : mothers' ego-resilience, maternal behavior. mothers' sense of humor

### 1. 서론

2012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보육시설의 수는 42,529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총 1,487,361명으로 점차 그 수와 이용인구가 증가하는 추세

이다[1]. 0세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들이 늘어남에 따라 영아들의 기관 초기 적응과 부모나 보육교사와의 애착에 관한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6]. 이들 연구들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

\*Corresponding Author : Jin-Wha Le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l: +82-2-398-7756 email: jinwhayou@hanmail.net

Received October 1, 2014

Revised October 14, 2014

Accepted November 6, 2014

는 여러 변인들을 밝혀주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주 양육자 즉 '어머니'의 양육관련 특성이었다. 어머니의 양육관련 특성은 양육지식, 양육태도 및 스트레스, 효능감, 양육행동 등이 있으며[7-11], 이 들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실제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양육행동은 영아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7,12].

양육행동이란 부모나 대리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며, 일상생활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이다[7,12].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사회적, 정서적 적응[13], 언어발달[12,14], 사회적 유능감[15,16]에도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다수의 관련 연구들[3,17]도 어머니가 유아의 독립성을 조장 및 격려해 주고,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유아의 적응행동 중 특히 사회적 적응능력이 좋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구분하였는데, Schaefer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 대 거부, 자율 대 통제 의 두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Baumrind는 권위주의적, 권위적, 허용적 태도로 분류하였다[12]. Bornstein은 영아기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보호적 양육, 사회적 양육, 교수적 양육, 물질적 양육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18]. 홍계옥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기반 한 합리적 지도, 자녀의 생활에 제한을 두고 이를 실행하려는 한계설정, 자녀에게 애정과 친밀함을 보여주며 그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려는 애정성, 자녀의 필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수용하는 반응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9]. 이와 같은 양육행동은 다양한 변인들과 연관되어 설명되어졌는데 대체적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독재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무조건 허용적이며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한다[19].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원[20,21], 양육죄책감과 아버지의 양육지원[22], 양육스트레스[20]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석호 등[19]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동기라고 하였다. 이는 어머니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혹은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해서 겪는 스트레스 등 어떠한 경로로 경험을 하게 되든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반영되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

히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가장 강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20]. 실제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23]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증진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혹은 양육스트레스는 사회경제적인 배경 즉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여부, 월수입, 직업유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24-26], 최근에는 어머니의 기질, 성격적 특성 등과 같은 내적인 성향의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19]. 이들 내적인 성향들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는 강한 심리적인 기제로 작용하여 실제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는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27,28].

유머감각은 웃음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능력으로, 즐거움과 웃음, 익살 등과 관계된 능력을 말한다. 즉, 유머를 감지하고 즐기며 창조하는 능력이다[28]. 그러나 유머는 단순히 즐거운 정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머는 삶에서 부딪히는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니라 도전으로 바라보게 하며[29], 우리에게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건전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기능 중 하나이다[28].

유머가 지닌 다양한 모습을 Thorson과 Powell[30]은 네 개의 차원, 즉 유머를 잘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유머의 생산), 해학적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유머에 대한 적절한 평가), 유머와 유머러스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유머에 대한 태도),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유머를 사용할 줄 아는 것(유머의 사용)으로 구분하였다. 김완수[31], 전미향[32]과 김지연[28]도 유머감각을 메타메시지 감수성, 유머의 선호도, 정서의 표현성,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유머감각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28,31,32].

이들 연구는 어머니의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머니가 경험하는 전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확대 경험은 아동의 유머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머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고 대처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아탄력성(resilience)은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강해지고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인내하고 자정하며 성장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을 말한다[33,34]. 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와 Ramirez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매우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적합하거나 긍정적이면서 안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위기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35]. 즉 자아탄력성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는 힘이다[36].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의 분위기, 긍정적인 가정의 특성인 원활한 의사소통,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이해 수준, 그리고 부모와 아동의 친밀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37-38]. Easterbrooks, Chaudhuri, Bartlett와 Coleman[39]은 가족과 생태학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Baraitser와 Noack[40]은 모성을 경험하면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은 크게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하여 자녀 양육에서 비롯된 경험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 보다는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관심을 더 갖고 진행되고 있다[27,33,41]. 이는 모성으로 대변되는 어머니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Baraitser 등[40]이 언급한 바와 같이 모성을 경험하면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에도 변화가 있고 이는 곧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이들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상에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이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한 변인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많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긍정적인 에너지의 기초가 되는 유머감각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으로 되돌아오는 내적 통제력을 키워주는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긍정적인 에너지인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어머니의 효과적인 실제 양육행동에 도움이 되도록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을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양육행동의 정도는 어떠한가?
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1. 영아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2.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만 2세반 영아 어머니 18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설문을 위해 총 2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 배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지는 교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전달되었으며, 어머니가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에 연구목적을 읽고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표기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설문 응답의 주체인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설문지를 회수하지 않았다. 233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그 중 211부가 회수되었으나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답변이 생략되어 자료처리가 어려운 24부를 제외한 187(약 80.3%)부가 최종 연구 대상이 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87

Characteristics		Frequency (%)	Characteristics		Frequency (%)
Mother's age	Under 30 <sup>1</sup>	20(10.7)	Birth order	First <sup>7</sup>	104(55.6)
	31~35 <sup>2</sup>	89(47.6)		Second <sup>8</sup>	70(37.4)
	36~40 <sup>3</sup>	61(32.6)		Third <sup>9</sup>	13(7.0)
	41 over <sup>4</sup>	17(9.1)			
Employment status	employment <sup>5</sup>	102(54.5)	Sex	Boy <sup>10</sup>	91(48.7)
	non-employment <sup>6</sup>	85(45.5)		Girl <sup>11</sup>	96(51.3)

## 2.2 연구도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 자아탄력성,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보고식(self-reported)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유머 감각을 측정하기 위해 김지연[28]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김지연[28]은 Svebak(1974)과 Lefcourt와 Martine(1986)이 개발한 도구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한 진미향[32]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도구는 4개의 하위 영역에 각 7문항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문항 타당성과 난이도, 신뢰도를 검증하면서 메타메시지 감수성 7문항(예: 나는 상대방의 표정에서 유머러스한 말과 행동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유머의 선호도 7문항(예: 나는 항상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역 채점문항), 스트레스 대처전략 7문항(예: 나는 곤란한 일이 생기면 무언가 우스운 일을 찾아서 기분을 즐겁게 한다)은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정서의 표현성은 6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정서의 표현성 중 “나는 많은 사람이 필요이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 답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신뢰도 검증에서 동일하위 영역의 다른 질문문항들과의 관련성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김지연[28]의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alpha = .814$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성경과 심혜원이 Brock과 Kremen의 자아탄력성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번역하여 사용한 서정숙[33]의 도구를 활용했다. 선행연구에서는 14개 문항 4점척도로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

일한 문항수이나 5점척도로 수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혹은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정숙[33]의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879$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3개 하위 영역의 총 17개 문항으로 5점 평정척도였다. 본 도구는 조수진[12]이 사용한 문항들을 이용하였는데, 해당 문항들은 한국어로 번안된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 & Pecheux, 1996)에서 실제 양육행동에 관련된 17개 문항이다. 어머니-자녀의 대인관계적 교환의 정도를 묻는 사회적 양육행동 8문항(예: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일을 잘 만족시켜준다)과 자녀에게 배우고 모방하고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교수적 양육행동 6문항(예: 나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환경을 계획해서 마련해준다),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 관습을 가르치는 정도인 긍정관계선 설정 양육행동 3문항(예: 나는 내 아이에게 규칙 지키기와 예의를 강조해서 가르친다)이다. 조수진[12]의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18$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연구도구의 내용 적합성, 타당성, 문항의 난이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예비조사는 2014. 5. 1주부터 4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도구의 검증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2인, 교사 3인, 본 연구 대상이 아닌 28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각각의 연구도구의 문항들이 대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어머니의 유머감각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정서의 표현성 영역 중 “나는 많은 사람이 필요이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해 답변이 모호하다는 교사들의 의견과 신뢰도 검증에서 매우 낮게 나타나 이 문항을 삭제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에서 완성된 연구도구로 2014. 6. 3주~7. 2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만 2세반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어린이집 원장의 사전동의 하에 교사를 통해 각 가정으로 배부·회수되었고,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하였다. 총 233부가 배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187부였다.

자료 분석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변인의 특성에 따른 각 변인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변인간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 3. 결과 및 해석

#### 3.1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양육행동 경향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양육행동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에서 제시한 어머니의 일반적 변인별로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statistics(Mean, Standard Deviation) of Mothers'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maternal behavior

characteristics of subjects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Maternal behavior		
	Meta-message sensitivity	Preference of humor	emotional expression	copying strategy		Social behavior	Instructive behavior	Permit-threshold setting behavior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1	3.27 (.41)	3.77 (.74)	3.56 (.47)	2.59 (.58)	3.27 (.53)	3.54 (.53)	3.26 (.50)	3.65 (.96)
2	3.52 (.46)	4.01 (.51)	3.56 (.54)	2.70 (.57)	3.16 (.53)	3.53 (.58)	3.27 (.49)	3.72 (.62)
3	3.52 (.51)	3.97 (.41)	3.57 (.48)	2.50 (.55)	3.27 (.60)	3.66 (.50)	3.39 (.49)	3.71 (.62)
4	3.22 (.29)	3.84 (.39)	3.43 (.38)	2.39 (.37)	2.79 (.39)	3.38 (.58)	3.02 (.54)	3.49 (.62)
5	3.49 (.47)	3.97 (.54)	3.54 (.49)	2.59 (.52)	3.17 (.60)	3.54 (.55)	3.28 (.47)	3.69 (.62)
6	3.44 (.47)	3.94 (.50)	3.56 (.51)	2.61 (.60)	3.18 (.51)	3.58 (.61)	3.29 (.54)	3.69 (.71)
7	3.44 (.42)	3.91 (.56)	3.54 (.50)	2.62 (.58)	3.18 (.53)	3.61 (.58)	3.30 (.48)	3.69 (.67)
8	3.49 (.52)	4.02 (.48)	3.58 (.52)	2.57 (.55)	3.19 (.59)	3.49 (.58)	3.27 (.53)	3.77 (.61)

9	3.56 (.52)	3.91 (.43)	3.45 (.35)	2.52 (.43)	3.04 (.58)	3.52 (.54)	3.22 (.52)	3.26 (.71)
10	3.50 (.47)	3.97 (.56)	3.59 (.47)	2.68 (.55)	3.16 (.52)	3.54 (.54)	3.29 (.50)	3.64 (.65)
11	3.43 (.47)	3.94 (.48)	3.51 (.52)	2.51 (.55)	3.19 (.97)	3.58 (.61)	3.27 (.50)	3.74 (.67)
tot.	3.47 (.47)	3.95 (.52)	3.55 (.50)	2.60 (.56)	3.17 (.56)	3.56 (.58)	3.28 (.50)	3.69 (.66)

어머니의 일반적인 배경변인에 따라 유머감각의 수준을 보면, 대처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5점 평정척도인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머의 선호도 영역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자아탄력성의 경우에도 5점 평정척도를 고려했을 때,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변인들 중 41세 이상의 어머니에게서만 3점이 미만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긍정적 한계설정양육행동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고, 교수적 양육행동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결과에서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제외한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양육행동의 각 모든 하위 영역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3.2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 3.2.1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elation between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and maternal behavior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Maternal behavior		
	social behavior	Instructive behavior	Permit-threshold setting behavior
meta-message sensitivity	.352**	.282**	.342**
preference of humor	.166*	.077	.291**
emotional expression	.358**	.253**	.371**
copying strategy	.021	.019	-.063
ego-resilience	.554**	.578**	.358**

\*\*p<.01; \*p<.05

어머니의 유머감각의 하위 영역은 대처전략을 제외한 세 영역에서 양육행동의 세 하위 영역과 낮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메타메시지 감수성은 사회적 양육행동과 긍정관계설정 양육행동과 유의도 수준 .01에서 .35정도의 비교적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정서의 표현성 역시 사회적 양육행동과 긍정관계설정 양육행동과 .35( $p<.01$ )이상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유머의 선호도는 긍정관계설정 양육행동과 .29( $p<.01$ )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편 자아탄력성은 세 영역의 양육행동과 모두 유의도 수준 .01에서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수적 양육행동과 .578, 사회적 양육행동과 .554의 비교적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의 세 유형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유머감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2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 독립변인간의 VIF지수와 Durbin-Watson 지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과 회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의 VIF지수는 1.10~1.70사이로 나타나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Durbin-Watson지수 역시 1.950~2.104로 나타나서 회귀분석이 가능하여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 Table 5, Table 6과 같다.

먼저 사회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모형에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의 전체를 약 30.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가진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2모형에서 어머니 유머감각의 설명력 10.5%가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약 41.2%의 비교적 많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자아탄력성과 정서의 표현성은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이나, 대처전략은 부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gression of the effect of mothers'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on social maternal behavior

ego-resilience/ sense of humor	Social maternal behavior			
	1		2	
	$\beta(\beta)$	t	$\beta(\beta)$	t
ego-resilience	.575(.554)	9.059***	.551(.532)	8.682***
meta-message sensitivity			.102(.082)	1.100
preference of humor			-.054(-.049)	-.711
emotional expression			.321(.278)	3.845***
copying strategy			-.150(-.145)	-2.400*
<i>F</i>	82.067***		25.385***	
<i>R</i> <sup>2</sup> ( $\Delta R$ <sup>2</sup> )	.307(.304)		.412(.396)	
<i>R Squared change</i>	.307		.105	

\*\*\* $p<.001$ , \*\* $p<.01$ , \* $p<.05$

[Table 5] Regression of the effect of mothers'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on Instructive behavior

ego-resilience/ sense of humor	Instructive maternal behavior			
	1		2	
	$\beta(\beta)$	t	$\beta(\beta)$	t
ego-resilience	.520(.578)	9.638***	.518(.576)	9.240***
meta-message sensitivity			.067(.063)	.824
preference of humor			-.092(-.096)	-1.372
emotional expression			.202(.202)	2.741**
copying strategy			-.138(-.154)	-2.503*
<i>F</i>	92.887***		23.273***	
<i>R</i> <sup>2</sup> ( $\Delta R$ <sup>2</sup> )	.334(.331)		.391(.375)	
<i>R Squared change</i>	.334		.057	

\*\*\* $p<.001$ , \*\* $p<.01$ , \* $p<.05$

[Table 6] Regression of the effect of mothers' sense of humor, ego-resilience on permit-threshold setting maternal behavior

ego-resilience/ sense of humor	1		2	
	$\beta(\beta)$	t	$\beta(\beta)$	t
ego-resilience	.425(.358)	5.221***	.396(.334)	4.923***
meta-message sensitivity			.133(.094)	1.134
preference of humor			.124(.098)	1.296
emotional expression			.316(.240)	2.994**
copying strategy			-.196 (-.165)	-2.469*
F	27.258***		14.059***	
R <sup>2</sup> ( $\Delta R^2$ )	.128(.124)		.280(.260)	
R Squared change	.128		.151	

\*\*\* $p < .001$ , \*\* $p < .01$ , \* $p < .05$

Table 5와 같이 어머니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이 교수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모형에서 자아탄력성이 약 33.4%의 설명력을 보였고, 자아탄력성은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었다. 2모형에서 유머감각의 설명력 약 5.75%가 추가되어 어머니의 교수적 양육행동의 약 39.1%를 설명하였고, 자아탄력성과 정서표현성이 정적인 영향의 변인이었고 대처전략은 부정적인 방향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이 긍정적 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모형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약 12.8%의 설명력을 가진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2모형에서는 어머니 유머감각의 설명력이 약 15.1%가 추가하여 설명력이 28.0%로 증가하였고, 자아탄력성, 정서의 표현성이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반면에 대처전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 변인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어머니의 유

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을 높여 어머니의 효과적인 양육행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각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 양육행동의 각 하위 영역은 유머감각의 대처전략을 제외하고는 모두 3.00이상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의 유머감각도 평균이상으로 높아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회복력을 분석한 자아탄력성 역시 높게 나타나서 스스로에 대한 회복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육행동의 경우는 한 어머니에게서 세 유형이 흔히 복합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때, 긍정적 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어머니들에게서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교수적 양육행동을 적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머니들이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정서와 회복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양육행동에서 엄격하면서도 분명한 기준과 태도를 보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 및 자아탄력성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대처전략을 제외한 유머감각의 모든 영역이 양육행동의 세 하위 영역과 유의미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탄력성 역시 양육행동의 세 하위 영역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사회적 양육행동과 교수적 양육행동과는 비교적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머감각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사회적 양육행동과 긍정적한계설정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인 경우는 사회적 양육행동과 교수적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머감각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는 영아와의 관계에서 비교적 허용적이고 민주적인 측면에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 또한 민주적이고 허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과 함께 자신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기와 힘을 가지는 강한 주도력을 갖고 있어서 영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 주도력이 어느 정도는 교수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각각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양육행동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한계설정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

모형에서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인설정 양육행동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어머니의 유머감각이 미치는 설명력은 양육행동의 다른 두 하위 영역에 비해 비교적 컸다. 즉, 어머니의 긍정적인 에너지인 유머감각과 자신을 이끌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회복력인 자아탄력성은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설명해 주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영아기는 아직까지 언어적·인지적인 측면에서 어머니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고, 따라서 어머니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회복력인 자아탄력성은 영아기 자녀의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이 양육하는 상황에서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며 유머러스하게 극복하는 능력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 관련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고혜진[42]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에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면서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이임숙[43]도 자아탄력성이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조절 효과를 보고 하여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양육 관련한 특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높은 자아탄력성은 양육에서 올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낙관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와의 사이에서 감정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여주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들은 영아기 자녀에게 권위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애정과 반응적인 양육행동과 주변을 탐색하고 모방해볼 수 있는 방식의 양육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유머감각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유머는 생애초기부터 발달하는 것으로 영아와 양육자와의 애착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능력이다[29]. 양육자의 유머에 대한 감수성은 결과적으로 영아기 자녀와의 애착형성에서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녀의 유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머니의 유머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머니 스스로가 ‘유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키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김지연 등[44]에서도 어머니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유머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력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유머감각이 형성되도록 긍정적인 가족문화를 형성하여 특히 부부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을 높이고 일상적인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가족지원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해 주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정서적, 신체적 변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인생에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가능성이 크다. Baraitser와 Noack[40]은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녀에 대해 양가감정을 지니기도 하는데, 사회적 지원과 자아탄력성 훈련을 통해 극복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이러한 상황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제공해 준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자아탄력성 훈련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탐색하고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인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는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자아탄력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에는 양육과정이나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좌절이나 자신감을 상실한 어머니를 면대면 상담 혹은 멘토링, 상황극 등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은 영아기 자녀에게 양육행동으로 노출되어 그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유머감각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족 및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References

- [1] M. H. Sun, E. S. Kim, J. Choi, J. J. Ahn, and H. S. Choi, The 2012 National Childcare Survey: A daycare center Census.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2012.
- [2] J. S. Song, "A Study on Variables the Related to Children's Adjustment in Early Childhood Institutio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1, No.3, pp. 167-189, 2004.
- [3] W. Y. Yu, and S. Lee. "The Causal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 Focusing on the Parenting Stressor,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15, No.1, pp. 71-90, 1998.
- [4] J. H. Lee, Correlation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aring Stress with Infant's Initial Adaptation to Child Care Center. MS Thesis Sahmyook University, 2011.
- [5] J. Y. Choi, "Correlation of Infant's Initial Adaptation to child care Center with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Rearing Stress", *Study on Welfa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Vol.15, No.3, pp.77-100, 2011.
- [6] H. J. Choi, S. N. Choi, and H. J. Lim,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and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on Infant's Adjustment in Child Care Center -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76, pp.49-72, 2013.
- [7] J. Y. Kwon, M. R. Chung, S. K. Park, and B. S. Yee, "The Factors Explaining Toddler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77, pp.179-201, 2013.
- [8] H. S. Min, and Y. K. Moon, "Relationship among Mother's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Maternal Parenting Stress, Maternal Parenting Behavior and Infant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2, No.1, pp.43-56, 2013.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3.22.1.43>
- [9] I. H. Lee, J. E. Park, and S. Y.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Parenting Stress,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19, No.4, pp.81-91, 2010.
- [10] H. J. Lim, "A study on effects of economic related variables, children's developmental profiles-daily routines and mothers' self-esteem influencing on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3, No.4, pp.197-215, 2013.
- [11] M. R. Chung, S. K. Kang, M. J. Kim, and H. J. Choi,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temperaments of 12-month-old infants, maternal attachment, parenting stress and infant developm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4, No.3, pp.333-354, 2014.
- [12] S. J. Jo, A Study on Maternal Behavior, Maternal Attachment and Toddler Verbal Development.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3.
- [13] J. W. Kang,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s to their Infants' Social and Emotional Adjustment. MS Thesis Gachon University, 2013.
- [14] Y. S. Kim, and A. S. Shin, "Abilities of Infants' Receptive Language and Expressive Language according to Infant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12, No.3, pp.157-176, 2013.
- [15] K. R. Ryou, "The Relation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Efficacy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1, No.3, pp.231-240, 2012.
- [16] J. Y. Cho,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toddler's social competence. MS Thesis Busan University, 2009.
- [17] E. S. Moon,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s and Child's Adjustment to Kindergart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8, No.4, pp.145-154, 2007.
- [18] J. E. Hong, The effects of infants' temperament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10.
- [19] S. H. Lee, and J. Y. Lee, "Parenting Behavior of Mothers with Infants and Toddlers : Comparison among Sub-Scales of Parenting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2, No.1, pp.111-130, 2012.
- [20] J. H. Kim, "A Path Analysis of Social support, Marital conflict, Self-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i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of infa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3, No.9, pp.3924-3933, 2012.
- [21] Y. K. Mo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Infant Mother's Parenting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0, No.3, pp.165-177, 2012.  
DOI: <http://dx.doi.org/10.7466/JKHMA.2012.30.3.165>
- [22] E. Y. Kim, Parenting behavior and guilt of the mothers with early child and the rearing support from their husbands. M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23] H. J. Park, and H. J. Moon, "The Effects of a

- Mother's Guilty Conscience and Parenting Stress on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8, No.2, pp.121-137, 2012.
- [24] Y. A. Park, "Exploration of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Vol.8, pp.97-113, 2005.
- [25] H. J. Lim, "A study on infant's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on infant's development between developmental upper and lower group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1, pp.225-247, 2014.
- [26] J. M. Augustine, "Mother's employment, education, and parenting", *Work & Occupations*, Vol. 41, No.2, pp.237-270, 2014.  
DOI: <http://dx.doi.org/10.1177/0730888413501342>
- [27] Y. K. Kwon, and S. H. Jeong, "Mother's parenting styles and the resilience of children", *Studies on Korean Youth*, Vol.23, No.4, pp.219-243, 2012.
- [28] J. Y. Kim, Relationships between Sense of Humor, Stress Coping Style, and Parenting Stress of Preschooler's mother. MS Thesis Busan University, 2013.
- [29] N. A. Kuiper, "Humor and Resiliency: Towards a process model of coping and growth", *Europe's Journal of Psychology*, Vol. 8, No.3, pp.475-491, 2012.  
DOI: <http://dx.doi.org/10.5964/ejop.v8i3.464>
- [30] J. A. Thorson, and F. C. Powel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49, pp.13-23, 1993.  
DOI: [http://dx.doi.org/10.1002/1097-4679\(199301\)49:1<13::AID-JCLP2270490103>3.0.CO;2-S](http://dx.doi.org/10.1002/1097-4679(199301)49:1<13::AID-JCLP2270490103>3.0.CO;2-S)
- [31] W. S. Kim,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 of Abused Experience from Parents on Children's Sense of Humor. MS Yeungnam University, 2005.
- [32] M. H. Jeo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ense of Humor that Hotel Employees Perceive has on Job Attitude. MS Daegu University, 2005.
- [33] J. S. Seo, Mediating Effects of the Parenting Attitude of Parents, Married Children's Ego-Resilience and Gender Ga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rital Conflicts of Parents and the Marital Conflicts of Married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0.
- [34] O. Friberg, D. Barlaug, M. Martinussen, J. H. Rosenvinge, and O. Hjemdal, Resilience in relation to personal and intellig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 in Psychiatric Research*, Vol.14, No.1, 29-42, 2005.
- [35] T. H. Moon, "Relations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or's Self-Resilience, Social Intellig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2, No.1, pp.5-19, 2013.
- [36] C. L. Speranza, U. Wiesmann, and S. Rist, "An indicator framework for assessing livelihood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social - ecological dynamics", *Global Environment Change*, Vol.28, pp.109-119, 2014.  
DOI: <http://dx.doi.org/10.1016/j.gloenvcha.2014.06.005>
- [37] G. S. Kang,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Children's Cognitive Style,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Control Behavior. MS Dong-A University, 2001.
- [38] Y. J. Lee, and J. Y. Shin,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School Life Maladjustment, and Parental Educational Attitude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5, pp.111-127, 2006.
- [39] M. A. Easterbrooks, J. H. Chaudhuri, J. D. Bartlett, and A. Copeman, "Resilience in parenting among young mothers: Family and ecological risks and opportunities",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Vol.33, No.1, pp.42-50, 2011.  
DOI: <http://dx.doi.org/10.1016/j.childyouth.2010.08.010>
- [40] L. Baraitser, and A. Noack, "Mother courage: Reflections on maternal resilience", *British Journal of Psychotherapy*, Vol.23, No.2, pp.171-188, 2007.  
DOI: <http://dx.doi.org/10.1111/j.1752-0118.2007.00016.x>
- [41] E. K.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s Self-Resiliency. MS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8.
- [42] H. J. Ko, The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43] I. S.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Variates and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s with Handicapped Children : Role of Ego Resiliency. Doctoral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2006.
- [44] J. Y. Kim, and K. S. Chung, "Relations between Sense of Humor, Stress Coping Style, and Parenting Stress of Preschooler's Mother",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3, No.1, pp.59-77, 2013.

**이 진 화(JinWha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6년 12월 : University of Nottingham. 교사교육전공(M. A)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1997년 3월 ~ 2001년 1월 : 극동정보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07년 3월 ~ 2013년 12월 :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4년 2월 ~ 현재 :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관심분야>

유아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

---

**강 은 진(Eun-Jin Kang)**

**[정회원]**



- 199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문학사)
- 199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문학석사)
- 2004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가정학과 아동학전공 (가정학박사)
- 2008년 3월 ~ 2013년 12월 : 숭의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4년 1월 ~ 현재 : 숭의여자대학교 아동미술디자인전공 교수

<관심분야>

영유아보육, 언어교육, 아동문학, 미디어교육